

# 중도층 10명 중 7명 “윤석열 탄핵 찬성한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찬성 60%·반대 34%... ‘찬성’ 전 주 대비 2%p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이 60%, 반대 34%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28일 나왔다. 성향별로 중도층의 윤 대통령 탄핵 찬성이 70% 나왔다. 여론조사회사 한국갤럽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3월 4주차)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물은 결과 찬성 60%, 반대 34%였다. 7%의 응답자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 주 전 조사와 비교하면 탄핵 찬성 의견은 2%p 늘었고, 탄핵 반대 의견은 2%p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찬성 64%·반대

31%, 인천·경기 찬성 61%·반대 32%, 대전·세종·충청 찬성 58%·반대 34%, 광주·전라 찬성 88%·반대 10%, 대구·경북 찬성 35%·반대 58%, 부산·울산·경남 찬성 51%·반대 41%였다. 연령별로는 18~29세 찬성 57%·반대 28%, 30대 찬성 69%·반대 23%, 40대 찬성 76%·반대 21%, 50대 찬성 72%·반대 23%, 60대 찬성 47%·반대 50%, 70대 이상 찬성 34%·반대 59%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찬성 97%·반대 3%, 국민의힘 지

지층 찬성 11%·반대 86%, 무당층 찬성 58%·반대 19%였다. 성향별로 보자. 보수층 찬성 30%·반대 66%, 중도층 찬성 70%·반대 22%, 진보층 찬성 94%·반대 4%였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이뤄졌다. 총 통화 7686명 중 1000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은 13.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뉴시스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를 위해 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28일 도청 앞에서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산불 피해지역 지원 나서라”

민주 재난재해대책특위 등, 정부 대응 촉구

더불어민주당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한병도)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8일 성명을 내고, 경북을 비롯한 전국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정부의 전면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산불을 “역대 최악의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며, 군병력 투입을 포함한 국가 가용 자원의 총동원을 요구했다. 특히 경북 지역에서는 4만18,151ha의 산림이 불에 탔고, 2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2,556개의 건물(주택, 공장, 사찰 등)이 전소했으며, 6,450명의 이재민이 여전히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민주당은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고, 농기계와 병장시설이 소실돼 영농활동이 어려운 상태”라며 “봄철 농사 시기를 놓치면 생계마저 위협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농기계 지원, 영농자재 공급, 무상 수리 및 임대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재민 지원과 관련해서는 쉼터(텐트)와 식료품, 생필품이 턱없이 부족

하다며, 정부가 신속히 긴급구호물품을 공급하고, 모듈러 주택 등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전기·통신·상수도 복구, 의료 및 심리지원 체계 가동, 건강보험료·국민연금·공과금 면제 및 유예 등의 지원 대책도 요구했다. 민주당은 산불 피해 농가와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금융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해 농업인들에게는 농작물·가축 피해 해해보험금의 우선 지급, 대출금 상환 연기 및 이자 면제, 신규 대출 지원 등의 조치가 절실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가 피해 규모에 맞춰 특별재난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재난 지원금을 현실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행안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및 예비비를 신속히 투입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정부가 실질적인 지원과 선제적 대응에 즉각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 전북자치도 직소민원실, 도청 1층으로 이전

전북특별자치도가 민원 서비스의 접근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직소민원실을 청사 1층으로 이전했다. 도는 지난 28일 기존 청사 4층에 있던 직소민원실을 1층(구 로컬푸드 판매장)으로 옮기고, 민원 전용 상담 공간을 새롭게 조성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이전은 민원인이 보다 빠르고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신속한 민원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이와 함께 2025년도 전자민원 모니터링 지역별 소통 간담회도 추진한다. /이만호 기자

## 도의회 기획행정위, 감사위원회 임명동의안 심사… 원안 통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지난 27일, 제417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현 김진철 전북자치도 감사국장의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임명 동의안을 심사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율적인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위해 설치된 합의를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의 책임자로서 감사위원회 임명 동의 대상자의 자격 검증과 함께 업무 전문성에 관한 질의를 진행했다. 한편, 임명 동의 대상자의 감사부서에서의 오랜 경험을 토대로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질적인 자치감사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감사위원회 임명 동의안은 원안 통과됐다. 김진철 감사위원장 후보자는 전주교와 한양대를 졸업하고 감사원 기획관리실 기획담당관, 감사원 심사관리관실 심사담당관실 서기관 등을 역임한 뒤 현재 전북도 감사위원회 감사국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만호 기자



## 최형열 도의원, 전주 삼천동 민원 현장 방문·대책 논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은 지난 28일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민원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최형열 도의원을 비롯해 전북자치도 농촌활력 및 전주시 농촌정책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해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현장의 배수로 점검이 필요하다는 애로사항을 전해 듣고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하였다. 삼천동3가에 위치한 첫 번째 민원현장에서 최 의원은 “토사가 상류 산쪽에서 내려오는 위험한 상황이므로 배수로의 현대화가 시급하다”고 말하였고, 삼천동 27에 위치한 두 번째 민원현장에서는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주 진입로 배수로 복개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소관부서에 해결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예산 확보 등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관련부서와 꾸준히 협조해, 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현장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위한 협력방안 논의

지난 28일 우크라이나 고위 대표단이 전북특별자치도청을 방문한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가 이리나 침발 유엔스코대통령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양국 간 경제, 산업, 문화 분야의 교류 확대와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우원식 국회의장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 등 대응절차 진행”

한덕수 대행 상대로… “국회가 당사자인 사건서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됐다는 취지 추가”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상대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임시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에도 나선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우 의장은 한 대행의 마 재판관 임명 보류가 심각한 국헌문란 상태라 판단하고 권한쟁의 심판과 마 재판관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며 “동시에 위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도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실은 “이번 권한쟁의심판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도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권한쟁의 심판 및 가처분 신청 외에도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승계집행문 청구 및 국회법 제122조에 의한 대정부 서면질문 등 위헌상태 해소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적극

적으로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정부 서면질문은 현재에도 발송해 기존 판결의 효력 및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에 따른 위헌상태의 확인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받아두겠다는 계획이라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이 스스로 헌법 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결코 논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훼손된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마 재판관 임명이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이기에 향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김철태 전북특별자치도 대변인이 지난 28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전북자치도 주요 일정과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도 “31일 1호 기부자 기념 전달식”

이번주 주요 일정 발표

전북특별자치도 김철태 대변인은 28일 오전 도청 기자회견에서 브리핑을 열고,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전북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과 행사 일정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부터 기부 상한액이 2,000만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1호 기부자를 대상으로 기념 전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 1호 기부자는 패션그룹 형지 최병오 회장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과 제16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회장으로 경영 일선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부산 출신이나 이번엔 전북과 인연이 되어 고향 사랑 기부에 동참하게 되었으며, 최병오 회장에게는 전북사랑도민증을 김관영 도지사가 직접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1일 오후 3시에는 군산 새만금 컨벤션 센터에서 ‘새만금 고음특구 일자리 지원단’ 개소식이 열린다. 이번 지원단은 새만금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지원을 위한 전담 기구로 운영될 예정이다. 4월 1일 오후 1시 30분에는 고창 군립체육관에서 ‘제14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다. 이 행사에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수산인 1,500여 명이 참석해 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타 시도 우수 정책 벤치마킹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4월 2일 오전 8시 50분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벤치마킹 보고회를 개최해, 타 시도 민생 중심 우수 및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 도에서의 적용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4월 4일 오후 2시에는 출연기관과 함께하는 ‘합동 간부회의’가 열린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 특별자금 시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원책도 발표될 예정이다. 도청 일자리 민생 과에서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기업 운영에 조그마한 도움이나마 될 수 있도록 저금리 긴급 대출 자금 200억과 거치기간 연장자금 400억 총 600억원을 대출해 중소기업의 자금경색 완화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이번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민선 8기 기업 유치 성과(4월 1일) △올림픽 유치 추진 현황(4월 2일) △특별자치 교육 협력 및 라이즈 사업 추진 상황(4월 3일)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군산에서는 ‘전국 스포츠 클라이밍 선수권 대회’가 개최되며, 4월 4·5 일에는 정수에서 ‘정수 트레일레이스’가 진행된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최근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현재까지 모든 화재를 완전히 진화했으며, 무주와 정읍 지역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유지하며 추가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 군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조례입법평가 조례안 등 심의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제273회 임시회를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4일 간의 일정으로 마쳤다. 이번 임시회는 현장방문 실시 및 현안업무보고를 청취했고 ‘군산시 조례입법평가 조례안’ 등 총 14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김우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를 통해 상정된 안건들이 차질 없이 처리됐으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준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향후 있을 결산검사를 당부했다. 이어 다가오는 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리며, 최근 잇따른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우리 지역도 산불 예방과 안전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꽃샘추위와 황사, 기온 변화가 심한 환절기 시민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따뜻하고 풍성한 봄의 기운이 가득하길 바란다며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무리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 무주군의회 임시회 개최

무주군의회(의장 오광석)는 지난 28일 제315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오는 4월 1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는 무주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9건, 규칙안 1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공유재산사용허가안 1건 총 14건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문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배배면적 조정제 철폐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오광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가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앞서 발생한 부남면 산불에 대해 잔불 정리를 철저히 마무리하고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